

미국대학 학점취득 과정 참가학생 모집

오는 1월10일부터 플로리다 주립대학 진행

경정대 경영학부는 오는 겨울방학 중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점취득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선착순 모집한다.

국제 교류 증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개설하게 될 과목은 '글로벌 경영과 실제'로, 미국인 교수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백 50분간 강의한다.

프로그램 시행 기간은 오는 1998년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이 프로그램을 완료할 경우 전공선택 3학점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총 40명을 선발하는 이번 모집의 대상은 학과 관련없이 우리학교 학생이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1명당 소요 경비는 항공료 1천 달러, 학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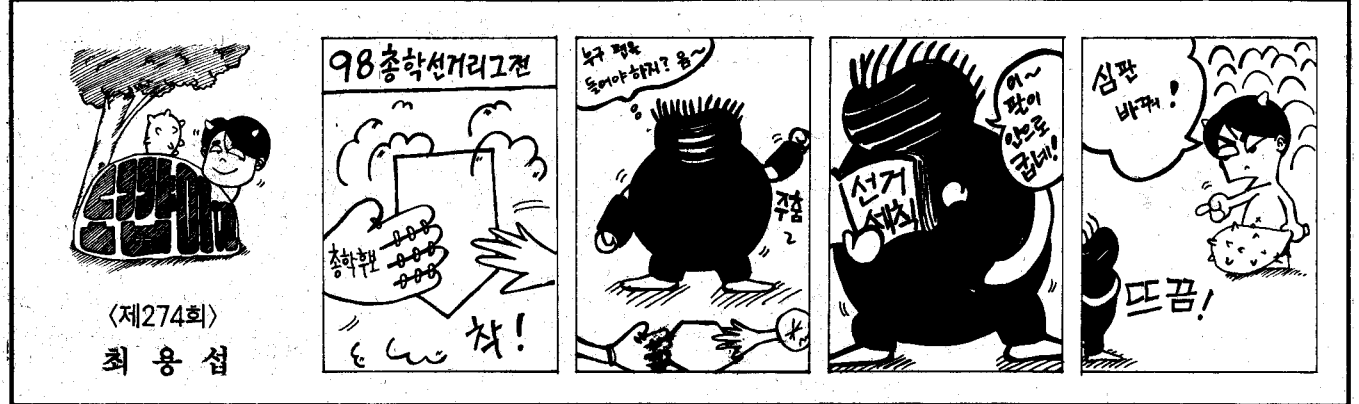
7백 77달러, 식비 4백 달러, 숙박비 6백 55달러로 약 3백만원이다.

또한 경영학과는 해외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는 매년 GM, Ford, IBM, 코카콜라, Microsoft 등 세계 각지의 기업현장으로 학생들을 파견,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에서 언급한 미국대학 학점 취득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의 경우 우선 선발의 특혜가 주어진다.

'국제산학협동 프로그램' 및 '정규 학과과목'으로 나뉘어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해외 경영 및 영업현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강남이 기자)



간전 졸업생 3학년 편입 가능

간호학과 야간 신설 50명 증원

우리학교는 98학년도부터 3년제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에게 학사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에게 상급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간호학과 야간학부를 개설, 50명을 3학년으로 편입학하도록 하는 이 과정의 편입학자격은 △3년제 전문대학 과정에 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전문대학 학업성적 평균 B학점 이상 인 자 △전문대학장 또는 근무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

다. 이 과정의 수업료는 학기제로 하여 4학기로 하되 야간 또는 계절학기 제도를 들 수도 있다.

현재 간호학과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등을 이용,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하게 될 이번 과정은 매년 6천여명씩 배출되는 전문대학 출신 간호사와 4년제 출신 간호사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질높고 생산성 있는 간호사 배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내단신

ACDC 응원제

치과대학 응원단 ACDC는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 복지회관 공연장에서 응원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응원제에는 23명의 단원이 출연하여 8개의 응원작을 선보인다.

성악과 졸업연주회

음대 성악과 졸업연주회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크라운관에서 열렸다.

오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동안 공연된 이번 연주회에서는 40명의 성악과 4학년 학생들이 각각 2곡씩을 선보였다.

'홀' 정기전시회

치과대학 미술부 '홀'은 오늘부터 이틀간 정기전시회를 연다.

18명의 회원들이 출품한 30여 작품을 전시하는 이번 전시회의 개관시각은 오후 6시이다.

사과대 학술제

사회과학대의 학술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사회대는 오는 20일 '97 대선과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사과대 시청각실에서 학술제를 개최한다.

학술제 1부에서는 모의대선, 2부에서는 연구발표 및 토론이 실시되며, 학술제와 관련해 17일부터 20일까지 학생회관 로비와 사과대 정문앞에서 역대 대선 포스터와 관련 설명, 표어 등이 전시된다.

또한 행정학과는 '식작된 바다 싸움'을 주제로 오는 18일 오후 2시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모의국무회의를 연다.

이번 모의국회에서는 요즘 파랑도, 독도 등의 영유권 확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해양어업분쟁을 다루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한편 국제관계학과 학술제 'KIMUN(Kyunghee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이 오는 18일과 19일 사과대 강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제화추진 전형' 경쟁을 4대1

토폴·토익 고득점자 대거 지원

지난 13일 서울캠퍼스 98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제화추진 전형'에 토익 및 토폴의 우수성적자들이 대거 지원해 36명을 선발하는 이번 모집에 1백 44명이 원서접수를 마쳐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어학능력이 탁월한 인재를 선발하고, 외국으로의 전학이 잦았던 학생들 우수학생 포함, 성적은 우수하나 내신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특수목적고 학생을 구제하여 외국으로 진학하려는 국내 우수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 전형의 지원

자격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최근 2년 이내의 토폴 성적이 5백 20점 이상인 자 또는 토익 성적이 7백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했다.

토익, 토폴 성적을 입학성적의 70% 반영하는 이 전형에 올해 지원한 지원자 중 최고득점자는 토폴 6백 70점, 토익 9백 75점으로 전체 평균성적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원캠퍼스의 지원자는 총 55명으로 오는 21일 지정장소에서 논술고사와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합격자는 12월 2일 중앙도서관 앞에 게시할 예정이며, 합격자는 12월 4일 입학관리과에서 소집 및 합격증을 교부받아 12월 6일 오후 4시까지 서울은행 회계동지점에서 등록해야 한다.

제3회 수학 학술제

수학과 학생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자연과학대 시청각실에서 제3회 수학 학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다면체는 왜 다섯가지 뿐인가?', '그리스 수학의 3대 난제' 등의

연구결과 발표하며 '교육대학원과 교직에 대하여', '컴퓨터와 전산학에 대하여'란 주제로 졸업논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전상근 교수 동백상 수상



산업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임학과 전상근교수가 지난 11일 수원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2회 농업인 의 날' 행사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34년간 임업교육종사, 임학회장 역임 등 전교수의 임학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주어진 것이다.

언론고시반 실험 모집

언론고시반은 우리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실원을 모집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휴학생도 지원이 가능한 이번 모집에 응모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실지원서, 성적증명서, 토익 공인증명서 사본을 언론고시반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모집에 대한 선발시험은 오는 26일 오후 6시 정경대 306강의실에서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영어와 논문이다.

공무원 대상 인터넷 교육

정보처리선다는 지역사회의 동참, 일환 계획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계정, 파장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PC교육실에서 실시하였다.

전자공학과 박사과정의 박찬호교수와 전산교과 두명이 보조로 인터넷 사용법을 실습, 강의한 이날 행사의 교재비, 강사료, 실습실은 우리학교에서 제공하였다.

미국 라크로스협회장 장비 기증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는 미국 라크로스 협회 Steven B. Ste-nersen 회장이 방문, 대중스포츠 라크로스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기증식을 가졌다.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대중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라크로스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 의해 시작된 농구, 축구, 하키의 혼합 형태 스포츠로 남자 10명 또는 여자 12명이 한팀을 이룬다.

성동구 성추행 사건 개요

백주대낮 성추행 자행

관공서측 치밀한 계획 의혹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백주대낮에 성추행이 자행되었다. 당시는 믿을 수 있겠는가.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20분경 해당동 1-2 재개발지구에서 잔여세입자 43세대중 27세대 가족에 대해 가족명도 집행을 벌이던 서울경찰서 경찰 3일치 달려들었다. 숙우만 남가 백여명과 재개발조합이 고용한

직준용역소속 철거폭력배 1백여명 등이 강제철거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저지하던 여성들에게 성적 욕설을 퍼붓고 옷을 벗기는 일이 일어났다.

용역원 4명이 한 여인에게 일제히 달려들었다. 숙우만 남가 백여명과 재개발조합이 고용한

팔고나와 바지마저 벗기며 온 집침실고를 하고 주민들이 집

을 둘러싸고 벌여지는 해양어업분쟁을 다루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김 부위원장은 철거저지에 대해 "우리들은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뭄기우고, 끌려가는 것을 말

리던 윤모여인(43)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발로 짓밟으며, 가수용 건물에서 추운 겨울을 음부를 잡아 아직도 그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적합한

회합식을 위해 자리를 비운사

이에 벌여져, 사전에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 재개발조합, 적준용역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철거저지에 대해 "우리들은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다"며 "집이 헐려 비닐로 만든 뒤집어씌우고, 발로 짓밟으며, 가수용 건물에서 추운 겨울을 음부를 잡아 아직도 그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한다.

(최현일기자)

서울 총학생회 선거 관련 대자보 공방전

총학사무국장 사퇴공개·이월문제로 부각, 중선관위, 김·허선본 경고조치, 철회 반복

30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지난 주 학내에 불거졌던 대자보 논쟁은 먼저 김봉석-허인옥 선본 측이 김동일-이준혁 선본 측의 선거 총참모인 29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김광호(지리90)군의 사퇴공개와 업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김-허 선본은 김광호(지리90)군이 사퇴를 공개하지 않고 김-이 선본의 선거 총참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퇴서가 공개 되지 않은 이유와 업무이월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29대 총학생회장 박정운(생물93)군은 사퇴하고 난 후 공개하지 않은데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이월 문제의 경우 사무국장의 업무가 조직국장에게 이월되었

으나 예산 결산 업무등은 정확히 이월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김-허 선본 측은 이에 대해 위 사실이 학우들에게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주장했으며 29대 총학생회도 이를 수용해 다음날까지 중앙계시관에 공개 해명 대자보를 신기호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김-허 선본이 총학생회장이 쓴 대자보 내용이 전날의 논의를 내용과 다르다며 허의를 제기, 이를 자신들의 신문에 밝힌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번째 경고 조치를 내림으로써 발생했다. 중선관위는 김-허 선본의 첫 번째 신문 중 "실종된 29대 총학생회"라는 칼럼은 특정 후보 선본장의 자질과 역량의 문제를 제기

한 것으로 비방의 가능성을 면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김-허 선본의 총참모 김용정(행정94)안은 "대자보 내용이 전날 논의한 바와 달랐다. 대자보에는 예정한 업무 이월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처럼 쓰여 있지만 문서이월이 안된 것은 총학생회장이 인정했다. 정확한 정보를 쓰기 위해 신문에 칼럼으로 실었다"며 중선관위의 이번 경고조치는 수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정태대별로 가야할 선거가 경고조치와 중선관위에 대한 긍정성 문제로 얼룩지는 것 같다며 올바른 선거 분위기를 위해 경고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부)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아름답고 자랑스런 경희,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1999년, 경희비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경희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 개교50주년

자랑스런 세계의 경희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9학기 등록금, 모교발전의 튼튼한 토대입니다.

◆장학금 되돌려 주기 운동

영원히 변치 않는 교적,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되돌려 줍시다.

여러분의 정성과 후원, 이렇게 쓰입니다

◆대강당 완공

◆개교50주년기념관 건립기금 조성

경희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1999년 개교50주년기념사업 기금을 위한 범 경희인의 후원 운동을 전개합니다.

◆21세기 특별목적사업기금 조성

-교육시설 확충(특수교육공간 건설 및 문화공간 확충)

-학술연구/첨단과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우수교원 및 연구원 확충

-종합 학술 정보 체계 수립/도서관 장서 구입

-문화예술/창작/체육진흥기금

-장학/각종 고시육성 후원기금

경희발전기금참여안내

■대상 : 경희가족(동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독지가, 기업, 기관, 단체 등

■기부형태 :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자산(부동산, 기타), 도서자료, 실험실습기자재 등

■납부방법 : 일시 또는 월납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별 (예 : 직장/지역동문회 등)

• 각 학교/대학(원)별 특정목적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예금주 : 경희대학교)

국민은행 010-01-0618-642

서울은행 17301-2710-209

농협 031-01-396711

우체국 012336-0025556

한일은행 070-084146-13-101

외환은행 131-13-10336-6

평화은행 044-01-001-286

경희사랑저금통기금(서울은행) 17308-9505323

■발전기금 납부방법

• 약정서에 기재하신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금을 출원하시고자 할 때에는 일시에 출원하거나, 약정하여 원하시는 횟수대로 분할하여 출원하실 수 도 있습니다.

• 우편환 또는 전신환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직접 찾아 뵙겠습니다.

• 금융공개(교직원에게 한함) 가능합니다.

• 유산이나 기타 소유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헌납하실 수 있으며 모든 법적수속과 관련비용은 학교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문의처 : (130-701)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Tel : 961-0931/2 Fax : 961-0906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